

사회

“수돗물 못 믿겠다” 시민들 불안 확산

광주시 부실대처·요금 환불 요구 등 후폭풍

불순물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산성수돗물’로 광주시민이 불안에 떠밀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가중돼 주택가와 아파트, 학교급식 물 공급과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시민들=14일 광주시 상수도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이후 오염된 수돗물 관련 모두 2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블랙탱크에 수돗물을 저장해 사용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잔류 가능성이 있는 물을 방류하거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용연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동구·서구·

남구·북구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후속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 화학약품이 과다 투입된 수돗물을 마신 일부 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여부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혀에 반점이 생겼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사연을 올리고 있다.

◇잔류 오염물 없나=광주시 등은 오염된 수돗물이 잔류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용연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는 주요 지역 47개소에서 방류작업을 완료했고 아파트 등으로 이어지는 배관에 잔류 오염물 방류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수돗물 오염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장 7급 근무자가 상부 보고 없이 소선회 살포작업 등 응급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돗물 오염사고가 처음 확인된 뒤 무려 6시간이 지나서야 광주시장에게 보고됐고 주민 공지는 무려 7시간 이후 이뤄졌던 것.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만약 테러라도 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정수장에 대한 보안 및 사고 시 보고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연정수장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소장이 광주시의 총인 저감시설 비리사건

에 연루되면서 장기간 공석인 점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생수 지원·환불·뒷북=광주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라자 응연정수장 급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수 5760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저장조 등에 잔류가 의심돼 오염물을 방류할 경우 해당 수돗물량에 대한 요금은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염된 수돗물이 음료나 식료품 공장 등에서 그대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광주시의 부실 대처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5t 트레일러 벌러덩

14일 오전 11시30분께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 앞 국도 2호선에서 강진으로 향하던 박모(44)씨의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전복, 박씨와 시외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1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kwangju.co.kr

교통사고 길 막하고, 소매치기 날뛰고

여수박람회 잇단 사고

여수박람회 개장 3일째인 14일 오전 9시35분께 박람회장 주 진출입로 인 국도 17호선 순천~여수 간 자동차 전용도로 끝 지점인 덕양부근에서 대형 트레일러(운전사, 김

모씨·55)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쓰러져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정체됐다. 이 때문에 박람회장으로 가는 일대에 긴 행렬이 이어졌다. 경찰이 출동, 1

시간 만에 트레일러는 견인조치와 소통이 재개됐지만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 기자 chkim@

의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데 이어 개막 이틀째에도 1건이 발생, 여수경찰서는 소매치기 전담반을 투입해 경거너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소매치기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인파가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목걸이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관람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 당진경찰은 14일 무료관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반신욕 물없이 즐긴다.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 물 없이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를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기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획득제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리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C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멀리 반사되는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바지,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름토종 침옷을 중이컵 한컵을 한컵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사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사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5월
가정의 달!
생산가격으로 공급합니다.
4/28~5/28 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약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경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유미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낭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악영, 기운을 복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참옻 골드

마산옻칠
진짜

mike 지식경제부

홍복테크노파크 miraRhus

* 이 제품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충북 터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옥천참옻 PIS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 평안도 맹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 옥샘을 맹산 옻닭발 진액, 그 원료가 다릅니다.
- 계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 이대عة 옻나무를 다른 사람들 이 만들어 냅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186m 계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헤집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헤집 참옻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
1세트 9병
+추가증정 3병
4/28~5/28 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비브리오패혈증 올 첫 사망

순천 거주 70대

을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주모(77)씨가 지난 3일 순천성 가톨릭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피부 상처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12일 오후 숨을 거뒀다.

비브리오패혈증 진단을 받고 숨진 것은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빠른 것이다.

전남도는 첫 환자 발생이 빠른 원인을 최근 이상온 현상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해 비브리오패혈증균(Vib-

rio vulnificus)이 많이 증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6일 서해연안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됨에 따라 지난 2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을 전 시군에 시달하고 고위험군 명단 파악 및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강화로 지시한 바 있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환경부장은 “해수물을 날것으로 먹은 후 1~2일 내에 갑작스런 몸살 감기 증상과 함께 부종, 수포가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간(肝) 질환자, 알콜 중독자,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해수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요리를 할 때도 도마나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순천서 동일법 편의점 강도

순천에서 동일법으로 소행으로 추정되는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새벽 3시 47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이 흥기로 현금 9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10분 후 새벽 3시 57분께 인근 풍덕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동일법으로 보이는 남성이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손님이 들어온 대로 달아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모텔 투숙 여성 현금 솔짝 파렴치男

○…20대 남성이 스마트폰의 ‘주변 인 검색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2년전부터 만나면서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믿는 도끼에 밭들을 찍힌 기분”이라며 처벌을 요구.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